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㊷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라



▶한줄 요약
시시비비(是是非非)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복잡한 마음을 만들어 스스로 괴로울 뿐이니,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산같이 물같이 바람과 계절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영원히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오늘의 명상]
꽃피고 잎 져도 계절은 시비 않고
구름 가고 바람 불어도 산은 다투려 하지 않네.
계절도 산도 그러할진대 사람에서랴
온갖 풍상 이고 지고 그저 물끄러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평지풍파(平地風波)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평지에 바람을 일으켜 괜한 먼지만 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마음도 본래는 고요하여 나고 죽음도 없고 늘고 병듦도 없으나 생각과 감정의 바람이 일어 스스로 생사(生死)와 고해(苦海)를 만듭니다. 생각과 감정의 바람을 일으켰으니 그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찾으려 더 큰 바람을 일으키며 사는 모습이 우리네 삶입니다.

바람이 일어 먼지가 날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야 날리는 먼지가 가라앉을 것이나, 대개는 기다리지 못하고 더욱 조급해져서 스스로 먼지를 일으켜 괴롭게 만듭니다.

마음은 본래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그저 공(空)하고 적멸(寂滅)하여 형언할 수 없는 불성(佛性)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사바세계의 모습은 복잡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단순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좋은 일 한 번, 안 좋은 일 한 번, 기쁜 일 한 번, 슬픈 일 한 번, 즐거운 일 한 번, 괴로운 일 한 번,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모습입니다. 다만 시간과 세월, 전생과 금생, 내생의 삼세(三世)를 통해 달리 나타날 뿐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고 사는 모습도 천차만별(千差萬別)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희생 봉사하며 사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악한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며 사는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일방의 모습들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악에 의해 만들어지고, 악은 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좋은 사람도 없고, 영원히 나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저 각자의 두 마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서로 상대적으로 나타날 뿐이니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눈비가 되어 다시 강물과 바닷물이 되고, 또다시 증발하여 구름과 눈비가 되듯 공전(空轉) 윤회(輪廻)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과(因果)의 모습들을 여여한 마음으로 보고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시비비(是是非非)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복잡한 마음을 만들어 스스로 괴로울 뿐이니,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산같이 물같이 바람과 계절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봄을 보고 욕하거나, 여름을 보고 시비를 하거나, 가을을 보고 불만을 가지거나, 겨울을 보고 기분 나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매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마음을 뺏기지 말지니, 인과를 굳게 믿고, 계절과 같이 산과 같이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줄 아는 여여(如如)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희노애락’ 교차하는 게 사바세계 모습
모든 것은 상대적…선악도 영원치 않아
계절마다 분노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듯
인과 모습들 여여하게 살펴 편안해져야

[오늘의 명상]
밤새 서린 안개비 잎새 끝에 모이어
초롱한 눈물 한 방울 매달고 아침을 맞이하네.
밝은 햇살 닿으니 마술처럼 사라지고
수줍은 듯 오므리는가 하더니 살랑이며 춤을 추네.

마음은 두 가지 형상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 그리고 반대의 저 마음입니다.

부자의 마음도 이와 같고, 빈자(貧者)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위와 자리, 생긴 모습과 상관없이 이 두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불행과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빈자라고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갖고 있거나, 조금 더 지위가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인과(因果)에 따른 인연의 모습이 그러할 뿐, 항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아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관념에 사로잡혀 기를 쓰고 더 가지려 하고, 죽자 사자 더 높은 지위를 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연의 때가 되어 위치와 여건이 조금 더 좋아졌을 뿐이지 마음이 더 편안해지거나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마음은 모든 것을 인과(因果) 인연의 소치로 생각하여 스스로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굳이 구분하여 마음을 동하게 되면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출렁이듯 감정 또한 이와 같아서 스스로 마음에 격랑을 일으키게 되니, 늘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어서 감정을 격동(激動)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아침의 밝은 햇살에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듯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게 돼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정확히 관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지혜로운 견해가 생겨날 것이니, 각박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관조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이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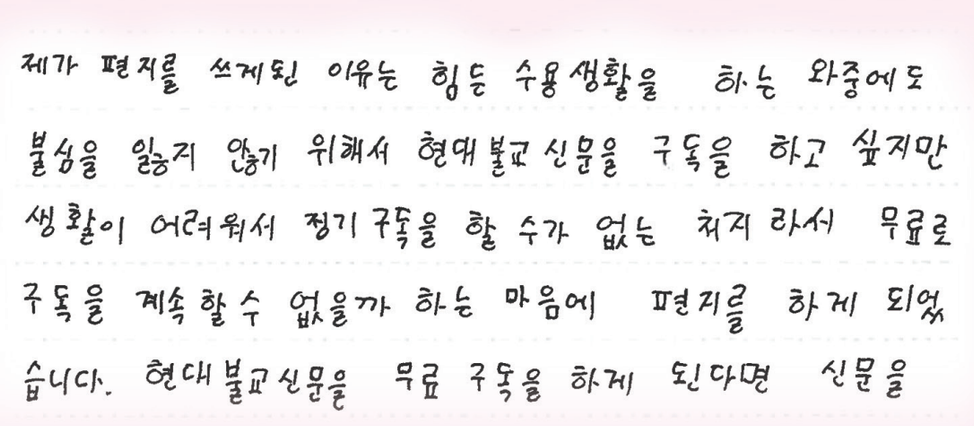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